

## 초대교부들의 ‘하이레시스’ *hairesis*

배 철 현\*

- I. 들어가는 글
- II. 초대 그리스도의 정체성
- III. 바울서신들에 등장한 ‘하이레시스’
- IV. 초대교부들의 ‘하이레시스’
- V. 나가는 글

### I. 들어가는 글

초대교부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생하는 그리스도교의 정통교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그리스도교들’을 논박하면서 로마제국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종교가 될 때까지 노력해야만 했다.<sup>1)</sup> 신약성서에서도 예수의 제자들과 바울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통교리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자신들과는 다른 교리를 가진 집단을 정죄하는 내용이 등장할 만큼, ‘다른 집단’인 이단에 대한 정의는 그리스도교 정체성 설립에 핵심이었다.<sup>2)</sup> 초대교부들의 주요 임무들 중 하나는 교회를 위한 바른 가르침을 확정하고 교회전통의 기준에 벗어나는 가르침을 이단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1) 이들 중 대표적인 교부들은 다음과 같다; 유스티니아누스 마터, 리옹의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러멘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카르타고의 터틀리아누스, 로마의 힙포롭투스, 그리고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아누스 등이다. 이들 중에서 유스티니아누스 마터의 저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단’이란 개념을 정립한 교부는 유스티니아누스 마터라고 학자들은 생각한다.
- 2) [고린도후서] 11:13-15에서 바울은 이단에 대해 사탄의 일꾼이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한 대로 될 것입니다.”

으로 정죄하는 일이었다. 이단논쟁은 초대교부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그리스도교의 특성이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학은 니케아 신조에서 확증된 교리를 기초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이단에 대한 초기 논쟁이 소수의 이단에 대한 하나의 정통교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련의 다른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대 그리스도교인들, 영지주의자들, 마르키온 추종자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정통으로 인정받고 교리적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 경쟁하였다.<sup>3)</sup> 기원후 2세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후에 이단이라고 알려진 세 부류가 등장하였다: 첫째는 마르키온주의,<sup>4)</sup> 두 번째는 몬타나주의,<sup>5)</sup> 그리고 세 번째는 발렌티누스의 영지주의이다.<sup>6)</sup>

'이단'이라는 그리스 단어 '하이레시스'의 의미는 다양하다: 1) '(도시의) 점령'; 2) (부정적인 의미가 없이) '일반적인 선택'; 3) '결심'.<sup>7)</sup> 이 단어의 세 가지 의미는 여러 문헌에서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두 번째 의미인 '선택'의 의미는 초대교회에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차용하였다. 고대 그리스 철학과 의학에서 '하이레시스'는 '교리' 혹은 '학파'를 의미한다.<sup>8)</sup> 시몬 마르셀은 그리스 철학자이자 의사인 섹스투스 엠파리쿠스(160-210년)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이레시스는 이성을 기초로 원칙들에 근거를 둔 일관되고 정교한 교리를 의미하여 학문적으로 민감하고 묵상과 철학적 논의하기에 알맞다."<sup>9)</sup> 이 정의는 그리스 세계의 학문적이며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폰 스타덴은 이 단어가 또한 "명박한 교리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 모임"으로 정의되며, 이 단어의 기원을 기원전 3세기에 등장한 그리스 의학에서 찾는다.<sup>10)</sup>

- 
- 3) Bart. D. Ehrman, *Lost Christianities : The Battles for Scripture and the Faiths We Never Knew* (New York: Oxford, 2003), p.23.
- 4) 마르키온주의는 시놉의 주교였던 마르키온(80-160)의 가르침을 지칭한다. 마르키온은 구약의 신은 물질세계를 창조한 조물주이며 유대인들의 절투하는 신으로 신약성서의 용서하는 신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예수는 신이 보낸 구원자이며 바울을 그의 사도라고 생각하였지만, 구약성서와 이스라엘의 신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5) 몬타나주의는 기원후 2세기 소아시아에 위치한 프리기아에서 출발한 예언자주의운동이다. 몬타나주의는 성령의 즉흥적인 역사를 믿는 오늘날 오순절주의와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 6) 발렌티누스주의는 기원전 2세기 로마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영지주의의 한 형태이다.
- 7)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 Gerh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Eerdmans: William B. Publishing Company, 1966), p.181.
- 8) *Ibid.*, 182.
- 9) Marcel Simon. "From Greek Hairesis to Christian Heresy" in *Early Christian literature and the classical intellectual tradition. In honorem Robert M. Grant* (Paris: Editions Beauchesne, 1979), p.111.
- 10) Heinrich von Staden, Heinrich von Staden, *Hairesis and heresy* (Philadelphia :

그리스도교 변증론자들은 '하이레시스'를 그리스 학자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대 그리스의 긍정적이고 학문적인 의미를 지닌 '하이레시스'를 그리스도교의 정통과 비전통 혹은 거짓정통을 구분 짓는 상대방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 하이레시스는 자신들이 스스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자칭하며 실제로 그들의 신앙이나 신학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초기 그리스도교 변증론자들은 후대 그리스도교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하이레시스'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상대방을 '하이레시스'라고 부름으로 스스로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외부'에 내쫓는다.<sup>11)</sup>

이 논문에서는 '하이레시스'가 초대교회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의 역할과 바울과 초대교부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변천과정을 살펴 보아, 정통과 이단이라는 이중적인 구조가 그리스도교 형성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초대 그리스도의 정체성

초대 그리스도교 교부들이 "영지주의"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여러 종교운동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그 종파를 평가하고 배척하는 신학적인 기준도 마련하였다. 초대 그리스도교 교부들의 평가는 영지주의에 관한 현대학자들의 논의와 평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이단에 관한 고대의 평가와 영지주의에 관한 현대의 평가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단에 관한 논의는 당시 그리스도교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그리스도교를 당시 다른 형태의 종교들, 특히 유대교와 이교도 신앙으로부터 구분하려 시도되었다. 그리스도교 변증론자들은 이단에 대한 강력한 논쟁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와 로마 지식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유대교와 이교도 신앙들에 대한 반박들을 저술하였다. 카렌 킹은 초대교부들의 이단을 정의하고 척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지주의에 관한 연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12)</sup>

---

Fortress Press, 1982), p.76.

11) Karen King, *What is Christia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p.24.

12) *Ibid.*, p.21.

초기 그리스도교에는 신학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지만 기원후 4세기에 들어서면서 획일화된 그리스도교로 고정되기 시작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전례가 없는 일원화되고 획일적인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정통’orthodox이라는 용어는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이 신봉했던 일련의 교리를 지칭하는 용어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7번의 종교회의로 진행된 에큐메니칼 종교회의들을 주도하면서 이 교리들을 확립하였다. 이 종교회의들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했던 논쟁들 중에 하나는 소위 아타나시우스와 유스타씨우스의 ‘호모우시아’<sup>13)</sup>와 아리우스와 유세비우스의 ‘헤테로우시아’<sup>14)</sup>간의 신학적 대결이다. ‘호모우시아’는 예수를 신과 인간의 하나로 ‘본질결합’했다는 교리를 451년 칼케돈 종교회의에서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헤테로우시아는 이단으로 낙인찍었다.

교회의 획일적인 교리형성을 위해 필요한 작업은 ‘내부결속력’보다는 ‘외부단정론’을 통해 자신을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일이었다. 초대교회는 아직 내부를 신학적으로 설득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리를 가지지 못했다. 이 과정을 통해 초대교부들은 신학적, 정치적인 도구로 ‘삼위일체’와 그와 연관된 교리를 믿지 않거나 고백하기를 거부한 집단을 “이단”으로 몰아세웠다. 르 블뤼는 교회가 참회와 출교의 법을 강화하고 의례의 정결성과 도덕성을 정의하고, 초대교회의 교리의 정당성과 독창성을 옹호하면서 교회의 일치성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sup>15)</sup> 교회는 ‘이단’을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으로 수용함으로 자신과 다른 집단을 쉽게 정죄하고 출교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았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당시 종교집단들을 서로 배타적인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교도. 이 구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고착화되었다. 초대교회 자기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통과 이단, 그리스도교와 비(非)그리스도교를 구분하기 위한 다른 종교와의 동질성 내지는 유사성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한 집단 내 상이점을 최소화하고 외부와의 상이점을 최대화하여, 다른 경쟁자들은 완전한 외부의 일부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sup>16)</sup>

13) ‘호모우시아’는 삼위일체의 신을 이해하는 신학적인 용어이다. 니케아신조는 예수를 아버지 신과 ‘동일본질’(그리스어로 *homoousia*)로 해석하여 신과 동등하다고 고백한다. 이 용어는 니케아에서 개최된 첫 종교회의에서 수용되어 그리스도와 신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었다. 라틴어로는 콘수브스탄티알리스<sup>consubstantialis</sup>라고 부른다.

14) ‘헤테로우시아’는 아버지 신과 아들 예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신학적 주장이다. 혼히들 ‘아리아주의’라고 부르며 ‘호모우시아’의 반대개념이다.

15) Alain Le Boulluec, *La Notion D’Heresie dans la littérature grecque IIe--IIIe siècles* (Paris: Études augustiniennes, 1985).

### III. 바울서신들에 등장한 '하이레시스'

바울은 예수가 죽은 지 약 3년 후에 그리스도교 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고 처음에는 예수운동을 저지하던 자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지목했다고 확신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개종하게 되었다.<sup>17)</sup> 바울은 디아스포라 곳곳을 다니며 시리아,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그는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로 했다. 그는 그의 개종자들에게 편지를 써, 질문에 답변을 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며 신앙에 대해 설명했다. 바울은 자신이 '성서'를 기술하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일생 중 예수가 돌아오리라 확신하고 있었으며, 후대인들이 자신의 서간들을 읽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최고의 스승으로 여겨졌지만, 자신의 격정적인 기질 때문에 그가 누구에게나 인기 있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고린도, 갈라티아, 펠리피와 테살로니카 교회에 그가 보낸 편지들은 보존되었고, 60년대 초 그가 죽은 후에, 바울을 경외하던 그리스도 저자가 그의 이름과 사상을 발전시킨 글을 에페소와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 그리고 추측컨대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간들을 작성하여 사후에 보냈다.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기원후 2세기 유스티아누스 마터가 사용할 때까지 등장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이란 의미로 '하이레시스'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다. D. 해링턴은 바울과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나가고 있는 예수운동의 가르침과 그것을 방해하는 거짓에 대한 구분에 집중했다고 주장한다.<sup>18)</sup>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파도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sup>19)</sup>

16) *Ibid.*, p.16.

17) [갈라디아서] 1:1-16.

18) Daniel J. Harrington, "The Reception of Walter Bauer's Orthodoxy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ity During the Last Decade," *Harvard Theological Review* (1980): p.292.

19) [고린도전서] 11:19.

위 문장에서 ‘당파’에 해당하는 그리스 단어가 ‘하이레시스’이다. 바울은 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당파’ 혹은 ‘이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교회에 보낸 편지의 ‘육체의 열매’를 언급하는 구절에서 ‘하이레시스’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희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sup>20)</sup>

위 문장에서는 ‘하이레시스’가 ‘분파’로 번역되었다. 바울은 처음 시작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조짐을 ‘하이레시스’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바울의 서신 [디도서]에는 ‘하이레시스’를 일삼는 사람은 ‘하이레티코스’<sup>ai retiko,j</sup>라 부른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이른 뒤에 물리치십시오”<sup>21)</sup>

바울은 ‘하이레시스’를 고전 그리스어의 용법대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교리’ 혹은 ‘학파’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분쟁; 분파’란 의미로 사용하였다.<sup>22)</sup> 바울은 ‘하이레시스’를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다양한 구성의 일부로 신학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지 그 공동체로부터 내쫓거나 비난하지 않았다.<sup>23)</sup> 바울이 언급하는 ‘하이레티코스’는 분파의 우두머리를 지칭한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음식법이나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신약성서에서 기원후 120년경, 비교적 가장 늦게 저술된 [베드로 후서]에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내 거짓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고 있다고 기록한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  
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

20) [갈라디아서] 5:19-21.

21) [디도서] 3:10.

22) J. Petramalo, “Heresy and Orthodoxy,” *Studia Antiqua* 7 (2009), p.3.

23) Hans Dieter Betz, “Orthodoxy and Heresy in Primitive Christianity,” *Interpretation* 19 (1965): p.308.

할 것입니다.”<sup>24)</sup>

#### IV. 초대교부들의 ‘하이레시스’

바울서신서에서 등장한 ‘하이레시스’는 초대교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로 전환된다.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구축하고 있는 초대교부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1세기 바울의 전통을 이어, ‘하이레시스’를 사용하여 신학적인 정통성을 확립하려한 학자들은 유스티아누스 마터,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이레니우스와 같은 교부들이다. 이 기간은 그리스도교 여러 분파들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이레시스’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초대교부들의 저작들이 충분히 남아있어 바울서신서보다는 초대교회가 사용하여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는 ‘하이레시스’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초기교부들 중 한 명이 사마리아에서 개종한 이방인이며 결국 순교한 유스티니아누스(Justinus, 100~160년)이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그리스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 찾았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요한복음 서문의 ‘로고스(logos)’를 스토아학파가 모든 현상의 기초이며 ‘로고스’(logos, 이성), ‘프뉴마’(pneuma, 영혼), 혹은 ‘신’이라고 불렀던 불같은 신적인 숨결과 연결시켰다. 비로소 그리스도인들과 이교도인들이 공동의 상징을 가지게 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예수가 바로 이 로고스의 화신이며, 역사 안에서 그리스인과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영감을 준다고 자신의 두 권의 저서 [아폴로기아이(Apologiae)]에서 주장했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예언자들을 통해 로고스는 이미 말했다. 로고스는 예수에게 결정적인 계시를 하기 전에 여러 형태들을 취했으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통해 말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실제로 로고스의 말을 들었다. 예언자들의 신탁도 신적인 것이다:

“너희들이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때, 영감을 받는 그들이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을 움직인 신적인 말씀이 말한 것이다.”<sup>25)</sup>

가끔 로고스는 미래의 일들을 말하기도 하고, 신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한다. 유대인들은 신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상상했다. 그러나 바로 그 말씀이 신

24) [베드로후서] 2:1.

25) Justin, *Apology* 1.36.

의 ‘첫 자녀인 로고스’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 신은 유대인 경전 안에 인간에게 보낸 암호를 숨겨놓았다.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이다. 유스티니아누스의 로고스 이해는 초대교회 ‘교부’라고 알려진 신학자들의 주석의 근간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창조하고, 이 유대 신앙을 그리스-로마 세계에 알맞게 개조했기 때문이었다. 초기부터, 교부들은 구약성서를 정교한 기호체계로 보았다.

소아시아 스미르나에서 출생한 이레니우스(Irenaeus, 140-203)는 로마에서 수학했으며, 프랑스 리옹의 박해 때 순교한 포티노 주교의 뒤를 이어 178년경 리옹의 주교가 되었다. 그는 영지주의와 맞서 그리스도교 정통교리를 세우려 했다. 그에게 이단과 정통의 구분은 성서해석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경전인 모세 오경이 실제로는 ‘영원한 로고스’인 예수의 말이라고 주장하였다.<sup>26)</sup> 당시 교부들은 구약성서를 여러 글들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통일된 내용을 지닌 ‘한 권의 책’이라고 여겼다. 이레니우스는 이것을 ‘가설(hypothesis)’, 즉 표면 ‘아래에(hypo) 숨겨진 주장’이라고 불렀다. 히브리 성서가 예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삶은 히브리 성서의 숨은 비밀이며 또한 우주의 비밀이다.<sup>27)</sup> 물질세계, 알 수 없는 현상들, 역사적 사건들, 자연법칙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 설계해 놓은 비밀스런 세계의 일부이다. 이레니우스는 이것을 ‘섭리(economy)’라고 불렀다. 모든 것은 이 섭리 안에 그 마땅한 자리가 있으며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는 이 신적인 섭리의 화신이었다. 예수는 신의 거대한 계획의 이성이자, 목적이며, 완성이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섭리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섭리(oikonomian)는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sup>28)</sup>

그리스도가 히브리 경전들의 핵심이기에 이 숨겨져 있는 섭리는 성서가 올바르게 해석될 때만 드러난다. 우주처럼, 성서도 풀 수 없는 전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 엮어진’ 무한한 개체들로 이루어진 조직인 직물(textus)이다. 사람들은 이 비밀을 간직한 성서라는 ‘직물’에 대한 묵상을 통해 모든 것을 엮어 섭리의 심오함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깨달았다.<sup>29)</sup> 주석자의 역할은 거대한 수수께끼 같은 조각

26) Irenaeus, *Against Heresies* 4:23.

27) R. M. Grant, *Irenaeus of Lyon* (London: Psychology Press, 1997), pp.47-51.

28) [에베소서] 1.10.

들을 맞추듯이, 모든 단서들을 서로 연결하여,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레니우스는 올바로 맞추면 잘생긴 왕의 형상을 이루는 수많은 작은 돌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에 성서를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그들의 체계는 예언자들이 선포하거나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 내용이다. 그들은 성서 이외의 자료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취합하였다. 그들의 행태는 속담을 인용하자면, 모래로 만든 끈을 엮으려 노력하는 자들과 같으며, 자신들의 주장이 주님의 비유, 예언자들의 선포, 그리고 사도들의 말들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부풀려 짜 맞추려 노력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계략은 실패한다. 그들은 질서를 성서의 순서와 연관성을 무시하고 진리를 난도질하여 파괴한다. 구절들을 건너뛰고, 그들을 새롭게 연결시켜, 다른 구절로 새로운 구절을 만들어 그들은 주님의 선포를 자신들의 견해로 변질시키는 사악한 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의 행동은 다음과 같다. 어떤 훌륭한 예술가가 보석으로 왕의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 때, 그는 모든 보석 조각들을 그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 보석들을 배열하여 결국은 개나 여우의 모습으로 그것도 서투르게 배열하는 것과 같다. 그런 후, 그들은 이것이 훌륭한 예술가가 만든 왕의 아름다운 형상이라고 주장하고 선포한다.<sup>30)</sup>

성서의 해석은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한다. 이레니우스는 이것을 '신앙의 법칙'이라 불렀다. '신앙의 법칙'은 예수 안에서 구체화된 로고스가 맨 처음 우주창조의 구조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레니우스는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방해하는 이단들의 분파를 경고하였다. 그는 이단들의 이론이 '진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단에 대한 공격은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진리를 증명하고 오늘날까지 유효한 이단을 논박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단들의 사상은 지속적이지 못하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 사주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레니우스는 당시 진리는 하나이고 통일적이지만, 거짓은 여러 형태들로부터 출발한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사고와 일치하는 수사학적으로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에게 이단은 한 기원, 즉 악마로부터 출발한다:

성서는 신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처음 대할 때 드러나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

29) Karen King, *The Bible: A Biography* (New York: Atlantic, 2007), p.32.

30) Irenaeus, *Against Heresies* 1.8.1.

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된 단어들은 신비함을 지닌 형태이며 신적인 것을 담고 있는 형상들이다. 모든 교회들을 통해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법이 실제로 영적이란 사실이다. 법의 전달하려는 영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이해와 지식의 말씀이 부여받는 사람에게만 알려졌다. ‘무형’ 이란 의미를 지닌 그리스 용어 ‘아소마톤’은 많은 다른 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전에서 오용되고 알려지지 않았다... 무형의 본질이 철학자들에 의해 논의될 때, ‘아소마톤’은 그리스나 이방 저자들이 의도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예수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정교하고 가는 악마가 지닌 그런 육체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딱딱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지녔다. 인간의 조건에 따라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무식한, 혹은 무형의 존재이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무형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석을 지닌 육체는 이해할 수 없거나 저항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sup>31)</sup>

그는 그리스도교의 거룩한 기원과 이단의 악마적 기원을 대비시켰다. 이단들은 실제로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악마의 부하들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악마의 하수인인 시몬과 그의 창녀 헬렌을 통해 내려왔고, 진정한 그리스도교 가르침은 예수를 통해 그가 선택한 “남성” 제자들을 통해 전해졌다고 고백한다.<sup>32)</sup>

이레니우스는 [이단논박] I.23에서 사마리아인 시몬이 모든 이단의 원조라고 기술한다:

사마리아 출신 시몬은 사도들의 제자이며 추종자였던 누가가 “그 성읍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 야말로 ‘큰 능력자’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8:8-11)라고 말한 그 시몬이다. 그는 신앙을 가장하며 사도들이 신의 권능이 아니라 마술의 힘을 빌어 병을 고쳤다고 말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라, 이것도 마술의 지식을 통해 행했다.

그는 이단적인 견해는 인간이 창작물이며 악마에 의해 사주를 받고 인간의 질시, 오만, 그리고 실수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레니우스에게 중요한 것은 이단의 기원문제였다. 기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계보가 여러 집단을 ‘이단’ 이란 이름으로 모을 수 있는 장치가 되었다.

기원후 2세기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도교 정체성에 관한 권위가 있는 담론을

31) Origen, *On First Principles*, Preface 8.

32) *Ibid*, 2.3.1.

제시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 D. 부엘은 대부분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출생과 친척관계를 표시하는 가계도를 통해 그 정체성을 표시했다고 주장하였다.<sup>33)</sup> 이레니우스가 이단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개념은 그리스 철학적인 '하이레시스'였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출생과 가계, 그리고 친족관계이다.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와 발렌티누스를 평가하면서 왜곡된 출산은 괴물을 출산한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 간에 널리 퍼진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많은 머리를 지닌 히드라가 발렌티누스라는 ‘이단’에서 생겼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소피아가 뱀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소피아)는 아담의 창조주에 대항하고 인간에게 지식을 심어놓아, 뱀이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몸 안에서 음식이 통과하는 내장이 뱀처럼 생긴 것은 우리 모두 안에 숨겨진 조물주(뱀)가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sup>34)</sup>

정경의 기준의 문제를 통해 '하이레시스'를 정의하려는 또 다른 교부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출생한 터툴리아누스(160-220년)이다. 그는 160년 경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출생하여 196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에, 북아프리카 고향에서 문학적, 수사학적 재능과 법률지식을 갖고서, 신앙의 변호에 헌신했다. 그는 날카로운 강직성과 비타협성으로 말미암아 당시 교회에서 추방당하였지만, 그는 해박한 로마법의 용어를 통해 '하레아시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그는 그리스도교 전통을 자신이 받은 법률지식과 철학을 통해 재해석하였다. 터툴리아누스의 신학적 이론은 이단으로부터 그리스도교를 보호하기 위한 변증신학이었다. 그는 당시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이며, 정통 그리스도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던 영지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취득시효'(praescriptio) 이론을 체계화하였다.<sup>35)</sup>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취득시효'란 재판에 회부된 재판내용이 아니라,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 다른 중대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재판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재판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터툴리아누스는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이단에 대한 취득시효")라는 저서에서, 이단들의 이론 자체를 논의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이단들이 당시 그리스도 교회에 재판을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33) Denise Bueull, *Making Christians: Clement of Alexandria and Rhetoric of Legitimac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34) Irenaeus, *Against Heresies* 1.30.15.

35) T. Barnes, *Tertullian: A Historical and Literary Study*(Oxford: Clarendon Press, 1985), p.58.

터툴리아누스의 논리적 주장은 이러하다. [취득시효]의 7장에서 이단의 출현은 이미 예언된 내용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들과 사탄들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부터 왔고 호기심 많은 귀를 가진 사람들의 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혜에 구별되는 명칭과 어리석은 이름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혼돈스럽게 하라.’ .... 이 오염된 샘물로부터 모든 ‘이단들이’ 훌려 나왔습니다. 발렌티누스는 플라톤 학교에서 교육받아 그는 ‘애온’들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형태들과 인간의 삼위부터 개념들을 만들었습니다. 마르시온은 스토아철학자들과 대화하여 그들로부터 게으르고 움직이지 않은 삶을 가르쳐 인간의 미덕과 악덕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만심과 자기만족에 자신을 가두어놓고 스스로가 최고의 신이 되었습니다.”<sup>36)</sup>

터툴리아누스의 [취득시효]의 핵심은 제15장에 나온다. 이단들이 그리스도교 성서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논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우리 주장의 핵심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장의 서물에서 목적하고 준비해온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들이 우리에게 도전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성서를 이용합니다... 그들이 성서의 어떤 부분도 해석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않됩니다. 그들이 성서를 사용하기 전에 성서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알아야 하며, 어느 외부인도 성서의 혜택을 이용한 자격에 없다는 것 을 인정해야만 합니다.”<sup>37)</sup>

터툴리아누스는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 이단들이 성서를 근거로 한 신학적 주장의 무효성을 주장하였다. 이단집단들은 그리스도교 정통성 논의에 참가할 자격이 없으며 당시 교회만이 성서를 근거로 정통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V. 나가는 글

바울과 초대교부들, 특히 이레니우스와 유스티누스의 ‘하이레시스’에 대한 부정

---

36) Tertullianus, *De Praescriptione Haereticorum* 7.

37) Ibid., p.15.

적인 의미부여를 통해, 정통과 이단의 개념들이 더욱 적대적이며 배타적이 되었다. 바울이 자신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감지되는 '하이레시스'를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한 형태로 보는 경향에서, 초대교부들은 초대교회가 만든 교리에 순응하지 않으며 가치 없이 '이단'이라고 구분 짓게 되었다. 초대교회는 로마제국의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하이레시스'를 악마로부터 오염된 종교라고 치부하였다. 초대교회가 '이단'이라고 명명한 집단들은 당시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교의 중요하면 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분파들이었다. 역설적으로 이들 '하이레시스' 집단들은 자신들이 자리 잡은 장소에서 주도권을 잡아 가장 설득력이 있는 집단으로 인정받아 자신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선교하고 있었다.

소위 정통이란 신학적 입장은 처음에서 여러 곳에서 소수였다. 정통과 이단의 사상적 차이는 유스티나누스, 터틀리아누스 그리고 이레니우스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구분에도 불구하고 정통과 이단 집단들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다: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며 상대방의 약점과 비정통성을 주장한다.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주류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교리나 사회-정치적인 이유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은 다수에 의해 '이단'으로 낙인찍히고 탄압을 받는다. 이단으로 치부되는 집단들은 정통집단은 알지 못하는 예수와 그 사도들의 비밀스런 가르침에 집중하여, 그 비밀스런 가르침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주장한다.

주제어: 하이레시스, 이단, 정통, 오리겐, 터틀리안, 이레네우스, 바울, 교부

원고접수일: 2012년 11월 28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7일

<Abstract>

## The meaning of the “hairesis” in the early Church Fathers

Bae, Chul-Hyun(Seoul National Univ.)

The Greek word ‘hairesis’ was first used by Greek philosophers to mean a “doctrine” or “school.”. Due to the early usage in New Testament by Paul and Peter, ‘hairesis’ began to denote a negative meaning of a “faction” within the emerging church. It was part of diverse groups constituting a nascent Christianity.

It was the early Christian writers who continued the development of the word into what it has become today. Justinianus and Irenaeus used the word to specify those who had a specific belief by using negative rhetoric for classifying and distinguishing the heretical groups. This was done by identifying certain individuals with the groups which they lead. These heretical groups were categorized by “heresy” and created a typological categorization that distinguished the “orthodox” from the “heretics.” The groups to which this terminology was applied were marginalized as the fringe groups that were no longer the majorities. This marginalization would have far reaching effects on the latter development of “orthodox” Christianity. Because of this marginalization, most of the previous “majorities” became minorities and were eventually extinguished by the “orthodox” Christians.

Key words: hairesis, heresy, orthodox, Origen, Tertulian, Irenaeus, Paul, Church Fathers